

“영등포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지킨다” ...영등포구, 체력인증센터 운영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관)가 구민의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을 위해 '영등포 체력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영등포체력인증센터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체력 측정과 개인별 맞춤 운동 상담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구민들이 자신의 체력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일상 속에서 꾸준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센터에는 체성분 분석기, 약력계, 뱃뎀일으키기 측정 장비 등 다양한 검사 장비가 마련돼 있다. 이를 통해 연령대

별 체형을 분석하고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 등 개인의 체력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측정 결과는 건강운동관리사 등 전문 인력이 분석해 개인별 체력 수준에 맞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운동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구는 체력인증센터를 보건소에 연계 운영 중인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기존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해, 체력 관리와 질병 예방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등포체력인증센터는 평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19세 이상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에 직장을 둔 직장인이나 대학생도 이용 가능하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손목다터9988' 앱을 통해 매월 1일과 16일 선착순으로 예약한 뒤 방문하면 된다.

체력 측정 결과를 손목다터9988 앱에 연동하면 5,000포인트가 지급되며, 체력 등급이 향상되거나 1등급을 유지할 경우 추가로 5,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서울페이로 전환해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금천구,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 등 3개 분야 10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공식 평가다.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이 함께 참여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금천구는 이번 평가에서 평가지표별 '우수' 5개, '보통' 5개 등급을 받아 지난

해 종합 평가 등급 '보통'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행정적 적극 도입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 생성형 AI를 활용해 도시 경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내 집 경계 정보 확인 시스템' ▲ 전국 최초 카카오톡 기반 안부 확인 서비스 '은기은복' ▲ 세무 정보를 24시간 실시간 확인 할 수 있는 'AI 나래봇(세무안내 챗봇) 구축' 등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혁신 사례가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 금천구 통합돌봄지원사업 추진 ▲ 전국최초 청년 치과의료비 지원 ▲ 취약계층 1인가구를 위한 '대형 폐기물 내려드림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통해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해 온 노력이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이어졌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행정 정책을 확대해 신뢰받는 구정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구로구, 3월 4일 중장년 대상 취업 지원 채용설명회 개최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3월 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구로구 중장년 일드림센터에서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구직자에게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회 종료 후 현장면접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관내 기업인 코웨이와 협력해 진행되며, 렌탈 케어 서비스 분야 20명을 모집한다. 채용 직무는 코드·코닥, 파트너스, 홈케어 닥터로 구성된다.

설명회에서는 직무별 주요 업무와 근무 형태 등 채용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구직자가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현장면접이 이어진다.

참여 대상은 학력 제한 없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이며, 직무별 지원 요건에 따라 코드·코닥은 55세 이하 남녀, 파트너스는 60세 이하 남녀, 홈케어 닥터는 50세 이하 남성이 지원할 수 있다. 구는 중장년층과 경력보유여성의 참여를 안내할 계획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3월 3일까지 구로구 중장년 일드림센터에 전화하

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3월부터 발달장애인과 장애인 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보훈 가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속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해상책인보험과 장애인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을 각각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중소 게임사 '생성형 AI 제작 지원' 신설

올해 생성형 AI 활용 제작 사업 신규 도입...5개사에 상용 AI 도입 비용 제공

신규 게임 제작비·신작 국내외 마케팅비 등 성장 단계별 맞춤 연계 운영



전 세계 게임업계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며, AI 도입 여부가 게임 개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대형 게임사들이 자체 AI 모델과 전담 조직을 구축하며 기술 격차를 벌리는 가운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 게임사의 대응력이 향후 국내 게임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러한 글로벌 기술 트렌드와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 게임사의 제작 효율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6 게임 콘텐츠 사업과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지원(신규) ▲ 게임 제작 지원 ▲ 게임 마케팅 지원 등 3대 분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8개 기업이 누적 다운로드 450만 건을 기록하며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일부 기업은 글로벌 퍼블리셔와의 계약 체결, 해외 시장 진출 등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창출했다.

(주)사달러의 '컨스타워'는 글로벌 누적 80여 다운로드를 기록한 프랑스의 대형 퍼블리셔 '부두(Voodoo)'와 계약을 체결하며 북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선정된 5개 기업에는 각 1,000만 원 내외의 자금이 지원되는데, 지원금은 챗(GPT)기반, 미드저니·스테이블 디퓨전(아트), 깃허브 코퍼일렛(코딩) 등 상용 AI 솔루션의 유료 라이선스를 구입해 AI를 활용한 게임 리소스를 제작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신규 개발 게임의 콘텐츠의 완

성도를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작 지원(최대 3천만 원)과 마케팅 지원(최대 4천만 원)을 병행 추진한다. 이는 자금난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초기 게임사를 지원하고, 국내 시장 한계를 넘어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다.

'제작 지원' 분야는 개발 중이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는 서울 소재 중소 게임기업 4개사를 선정, 기업당 최대 3,000만 원의 개발/제작 인력에 대한 내부 인건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돕는다.

'마케팅 지원' 분야는 최근 출시작(2년 이내)의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4개사를 선정하여 기업당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한다. 현지화(번역), 유저 확보(UA) 광고,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맞춤형 마케팅을 뒷받침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 경제진흥원(SBA) 누리집(sba.seoul.kr)을 통해 2월 27일(금)부터 3월 26일(목) 17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게임산업은 수출 경쟁력이 가장 높은 콘텐츠 산업 중 하나로, AI 등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중소 게임사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성 기자

북한산·관악산 등 야생화된 유기견 집중 구조로 시민 안전 강화

전문 마취포획과 원격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포획틀 도입하여 구조 효율성 증대

서울시는 등산로 및 산책로 일대에서 무리 지어 출몰하는 야생화된 유기견(일명 '들개')으로 인한 시민 불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범철 나들이객이 증가하기 전인 3월 말까지 집중구조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조활동은 수의사가 동행하는 전문 마취포획과 포획틀 설치를 병행하며, 기존 포획틀에 대한 학습효과로 쉽게 잡히지 않는 야생화된 유기견의 구조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포획틀을 주요 발생지역에 시범 도입하고, 효과 검증 후 단계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구조된 유기견은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 동물에 준한 보호조치를 하며, 유기동물 공고 이후 입양자를 찾게 된다.

또한 도심에서 산로로 유기견이 유입되지 않도록 재개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유기견 발생 예방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야생화된 유기견의 번식 차단을 위한 예방활동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찰에서 보호·관리하는 개(사찰견)의 중성화 수술로 야생화된 유기견과의 번식을 차단한다.

특히 포획틀에 잡힌 유기견을 풀어주거나 먹이를 주고,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된 개를 입양 받은 후 야산에 다시 풀어주는 사례도 있다. 이에 시는 시민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야생화된 유기견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 등록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입양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시는 '22년부터 마취포획을 도입하여 집중 구조를 실시한 결과, 불편민원 신고

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개체 수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정확한 개체 수 및 추가 서식지 확인을 위해 관악산 등 야생화된 유기견의 주요 출몰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집중관리 구역을 선정하여 야생화된 유기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악산은 드론 및 열상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서식 현황을 파악하고, 북한산은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와 협업하여 무선센서카메라로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김영환 서울시 정월도시국장은 "야생화된 유기견 문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동시에 동물 보호 관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라며,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인도적 관리원칙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신응급대응체계' 강화...26년 응급 공공병상 21개로

전국 최초 정신응급통합대응센터 운영...추가 확충으로 24시간 대응체계 보완

서울시가 정신응급 및 자살위기 등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 대응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현장 출동부터 응급입원,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는 연속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안으로 정신응급 통합대응센터 1개소를 추가 운영하는 한편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21개 자치구로 확대해 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촘촘히 확충할 계획이다.

최근 자살 시도 및 자해 등 정신과적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는 ▲정신응급통합대응센터 ▲광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자살위기 발생 시 현장 출동부터 응급입원,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이다. 올해 시는 응급입원 인프라 확충과 위기 이후 단기사례관리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시는 정신응급통합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신속 대응체계를 촘촘히 가동하고 있다. 서울시정신응급통합대응센터는 '22년 10월 전국 최초로 개소한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 합동 대응 조직으로, 정신응급 및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 개입과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개소 이후 지난해까지 총 2,350건의 현장 출동을 실시했으며, 이중 1,353건을 응급입원으로 연계했다.

최근 3년간 출동 건수는 ▲519건('23년) ▲739건('24년) ▲978건('25년)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응급입원 연계 또한 ▲366건('23년) ▲433건('24년) ▲496건('25년)으로 함께 확대됐다. 특히 운영 초기인 '23년과 최근인 '25년을 비교하면 출동 건수는 1.9배, 응급입원 연계는 1.3배 증가해 현장 대응에서 치료 연계까지 이어지는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일 주간에는 25개 자치구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자살위험 신고 및 정신과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야간·휴일에는 합동대응센터가 고위험군을 집중 대응함으로써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평일 주간 대응요청 1,520건 가운데 1,070건이 현장 대응으로 이어졌으며, 이 중 221건은 응급입원으로 연계됐다. 최근 3년간 대응 규모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권역별 수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연내 경찰과 협력하는 정신응급통합대응센터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을 신규 채용해 응급환자 진료 및 입원 연계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응급입원 이후 치료 연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정성 기자

경기공유학교

지금 모집 중

우리 동네 경기공유학교 이게 되네?!

◆ 대상: 초3~고3 학생 및 동일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 내용: 인성, 문화예술, 체육, 생태·환경, 진로, 인문·사회, 수리·융합과학, AI·디지털 등

◆ 방법: 경기공유학교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

* 경기공유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추어 운영되며 신청기간은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3월부터 지역별로 본격적인 모집이 시작됩니다.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전통예술

스쿠버다이빙

택시 타고~

클로컬 언어

수리 융합과학

수상레저스포츠

오케스트라

도예/골프

영화/항공

전문예술·체육

승마/드론

반도체

경전철 타고~

지역 자원 공유